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1.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스승님, 만물의 운행 원리는 무엇입니까?

신적인 이성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이라네.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임을 알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네.

- 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
- ② 외부적 상황의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는 의연함을 지녀야 한다.
- ③ 초자연적인 인격신의 계시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④ 개인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자연을 정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⑤ 타고난 정념을 적절히 발휘하여 운명을 개척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2.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예의를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자포(自暴)] 자이고, 자신이 어질고 의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버리는[자기(自棄)] 자이다.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학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방치된 마음을 구하는 것뿐이다.

을: 사람은 이익을 바라는 욕망을 성품[性]으로 타고난다. 하지만 이익이 의로움을 이기면 난세가 되므로, 성인이 예의를 제정해서 직분을 나누었다. 사(士) 이상의 계층이 이익만 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 백성과 생업을 경쟁하지 않으니, 백성이 재물에 궁핍하지 않게 되었다.

— < 보 기 > —

- ㄱ. 갑은 사람들이 도덕적 본성을 저버리므로 자포자기한다고 본다.
- ㄴ. 갑은 인의가 외적 환경과 인위적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 ㄷ. 을은 군주가 예로 다스려야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 ㄹ. 을은 인간의 본성 안에 예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3. 갑은 고대 서양 사상이자, 을은 현대 서양 사상이자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말이나 소와 다르게 정신 안에 이성의 기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존재이다. 이성적 동물인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의 본질은 덕과 일치하는 정신의 활동에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적 덕과 품성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을: 인간은 이끼나 꽃양배추와 다르게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향적 존재이다. 이 지향 이전에는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 나중에는 비로소 그 무엇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정의된다.

- ① 갑: 인간은 목적 지향적 활동을 통해 최고선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② 갑: 지나침과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나쁜 것들이 있다.
- ③ 을: 인간은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대자를 지향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자기 존재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본질을 만들어 가야 한다.
- ⑤ 갑, 을: 자신의 자발적 선택에 대해 책임짐으로써 인간다움이 실현된다.

4.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꽃의 뿌리·줄기·잎·꽃술·향기가 꽃은 아니지만 꽃은 이것들을 떠날 수 없다. 나도 이와 같다. 육체[色]가 나는 아니지만 나는 육체를 떠날 수 없다. 감수[受]·표상[想]·의지[行]·인식[識]이 나는 아니지만 나는 이것들을 떠날 수 없다. 이 다섯 가지[五蘊]를 바르게 통찰해야 나에 대한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 < 보 기 > —

- ㄱ. 인연생기[緣起]에 의한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 ㄴ. 현생의 업[業]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다음 생이 이어진다.
- ㄷ. 바른 수행으로 무명[無明]을 실천해야 해탈에 이르게 된다.
- ㄹ.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 인간의 자아는 무상[無常]하지 않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5. 다음 현대 서양 사상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주변 사람들은 약속한 자와 약속받은 자, 채권자와 채무자,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친구와 친구, 동료 시민과 동료 시민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는 나에게 조건부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켜야 할 조건부 의무에는 약속에 대한 성실, 잘못에 대한 보상, 호의에 대한 감사,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정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선행, 자기 계발, 타인에 대한 해악 금지 등이 있다.

- ① 어떤 조건부 의무도 다른 조건부 의무에 의해 유보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상황에 적합한 조건부 의무를 도덕적 직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특정한 상황에서 의무로 채택된 조건부 의무를 실제적 의무라고 본다.
- ④ 모든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원론적 도덕 원리는 없다고 본다.
- ⑤ 조건부 의무들 간에도 상황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6. 그림은 중세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을 넘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입니다. 현세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 이므로 어느 누구도 온전히 신국의 구성원일 수만은 없습니다.



갑

신, 즉 자연은 무한하고 완전하며 유일한 실체입니다. 오직 신만이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입니다.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오직 신의 무한한 본성의 법칙에서 생깁니다.



을

- ① 갑은 인간이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인간의 참된 행복이 이성을 통해 현세에서 실현된다고 본다.
- ③ 을은 지적인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성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신의 본성을 인식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신의 은총에 의해 정념의 방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7.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에서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가가 경제 계획을 통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국가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국가의 개입은 전체주의로 향하는 길이 될 뿐이다.

(나) 국가는 사회주의적 계획에 따라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 국가는 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 소수에 의한 경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경제를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① 기회의 평등을 통해 재화의 균등한 몫을 분배해야 하는가?
- ② 의회 또는 정당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 ③ 개인은 재산 소유의 권리와 양도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
- ④ 공공의 이익 추구보다 사적인 이익 추구를 우선해야 하는가?
- 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가?

8.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위로는 무극과 태극에서, 아래로는 하나하나의 초목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理)가 있다. 사물 하나를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사물의 도리 한 가지를 빠뜨린다. 모름지기 한 가지를 따라가서 다른 이(理)와 만나야 한다.

을: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心]이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뜻[意]이다. 뜻의 본체가 곧 앎[知]이며, 뜻이 머무는 것이 곧 사물[物]이다. 만약 뜻이 부모를 섬기는 데 있다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사물이니, 그것은 마음에 있다.

- ① 갑은 사물에 내재한 이치를 궁구해야 천리(天理)에 도달한다고 본다.
- ② 갑은 기(氣)로 이루어진 본연지성을 이(理)가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마음 밖에 사물이 있으므로 이(理)도 마음 밖에 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선지후행(先知後行)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도덕과 예의로 양지(良知)를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9.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우리가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서 유래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을: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

— < 보 기 > —

ㄱ. 갑은 국가에 대한 복종을 결과와 무관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본다.
 ㄴ. 을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
 ㄷ.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ㄹ. 갑, 을은 국가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p>갑: 행복은 이성의 이상(理想)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상상력의 이상이다. 이성의 사명은 선의지를 낳는 것이며, 선의지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자격 조건이어야 한다.</p> <p>을: 행복은 양과 질 모두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다.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옳고 그름이 결정된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p style="text-align: center;">— < 범 례 > —</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 보 기 > —

ㄱ. A: 준칙에 따르는 모든 명령은 무조건적 의무의 요구이다.
 ㄴ. B: 타인을 배제한 개인적 행복을 도덕원리로 삼을 수 없다.
 ㄷ. B: 보편적 도덕원리를 통해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ㄹ. C: 도덕원리가 개인의 행복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12]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맹자는 성선(性善)의 이치를 드러내어 밝히면서 사단(四端)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사단은 이(理)가 발(發)한 것이라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자는 “사단은 이의 발이고, 칠정(七情)은 기(氣)의 발이다.”라고 말했다. 대개 사단은 이가 발하여 선한 것이므로 이의 발이라 한 것이다.
 을: 성인(聖人)은 사단을 인의예지의 근본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공부를 일으키고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하였다. 만약 사단의 이면(裏面)에 인의예지가 잠복해서 주인이 된다면, 이것은 맹자의 확충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끝을 잡는 격이 될 것이다.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마음 밖의 사덕(四德)을 통해 사단이 발휘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사단이 인간의 본성으로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본다.
- ③ 을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嗜好)가 사덕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일상에서 사단을 부단히 실천함으로써 사덕이 형성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사단의 형성을 위하여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단과 칠정은 두 변(邊)으로 나눌 수 없다. 만일 나누게 된다면 인성(人性)의 본연과 기질도 나누어 두 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리(天理)는 무위(無爲)이므로 반드시 기(氣)의 기를 타야 동(動)하는 것이니, 기가 동하지 않고서 이(理)가 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 보 기 > —

- ㄱ. 스스로 작용하여 만물을 낳는 것이 이(理)임을 간과한다.
- ㄴ. 인간의 감정인 칠정은 사단을 겸(兼)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ㄷ. 이가 발하고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사단임을 간과한다.
- ㄹ. 이는 발하는 까닭[所以]일 뿐 발하는 것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3. 다음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영원법은 모든 운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신의 지혜이다. 만물은 신으로부터 영원법을 통해 각자의 특정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러한 영원법을 따르는데, 여기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현실에서 실정법은 이성이 따르라고 명령한 자연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 ① 인간이 제정한 자연법은 이성으로 파악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 ② 영원법이 실정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작용의 근거라고 본다.
- ③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④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자연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불변하는 영원법과 가변적인 실정법을 자연법이 매개한다고 본다.

14. 갑은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은 한국 불교 사상가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자성(自性)의 마음자리를 지혜로써 관조하여 안팎이 밝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게 된다. 본래 마음을 알면 곧 해탈이며,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 삼매이며, 반야 삼매를 깨달으면 곧 무념이다. 자성을 일거에 깨쳐야 한다.
 을: 마음은 물과 같아서 물결이 흔들리면 그림자가 부서지고, 물이 맑고 고요하면 그 작용이 완전해진다. 정(定)이 없으면 미치광이요, 혜(慧)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부처가 될 것이다.

— < 보 기 > —

- ㄱ. 갑은 경전 연구에 몰입해야 반야 삼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 ㄴ. 을은 참선 수행을 위주로 하여 교학(敎學)에도 힘써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깨달은 후에도 나쁜 습관을 점차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참된 나를 단박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를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목적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정직, 근면, 절제, 정의도 고정된 목적으로 삼아야 할 선(善)들은 아니다. 그것들은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과 진보의 과정이다.																								
(나)	<table border="1"><tr><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A)</td><td></td><td></td><td></td></tr><tr><td></td><td>(B)</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p>[가로 열쇠]</p> <p>(A): ‘참됨·착함·아름다움’을 아울러 이르는 한자어</p> <p>(B): 인간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도리를 일컫는 것으로 도덕과 유사한 말. 예) 동양 ○○, 서양 ○○</p> <p>[세로 열쇠]</p> <p>(A): …… 개념</p>									(A)					(B)										
		(A)																							
	(B)																								

- ① 경험과 관찰보다 직관적 판단에 의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 ② 시공을 초월한 고정된 표준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는 것이다.
- ③ 개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본래적 선으로 추구되는 것이다.
- ④ 오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어 절대적 확실성을 갖는 것이다.
- ⑤ 과학적 탐구를 통해 삶의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16.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참되게 살려는 자는 욕구를 억제해서는 안 된다. 용기와 지혜로써 이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절제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제와 정의를 칭송한다. 사치, 무절제, 자유가 덕이자 행복이다.
 을: 참되게 살려는 자는 덕이 참된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혼의 모든 성질들은 지혜를 동반하느냐 무지를 동반하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해롭게도 되기 때문이다. 덕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일종이어야만 한다.

- ① 갑은 덕이 욕구 충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본다.
 ② 갑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③ 을은 정신의 탁월성이 지혜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④ 을은 나쁜 행동이 무지와 의지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선이 주관적인 것이므로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본다.

17.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국가는 개인의 삶을 국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특정한 가치관이나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보장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다.
 (나) 공동의 목표를 배제한 정치 제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배제된 우리 자신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그 공동체의 목표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 ① (가)는 국가가 가치의 통일성보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결정권이 공동체에 있음을 강조한다.
 ③ (나)는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회 연대 의식을 강조한다.
 ④ (나)는 좋은 삶의 조건으로 공동체가 부여한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⑤ (가)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나)는 공동선의 실현을 중시한다.

18. 현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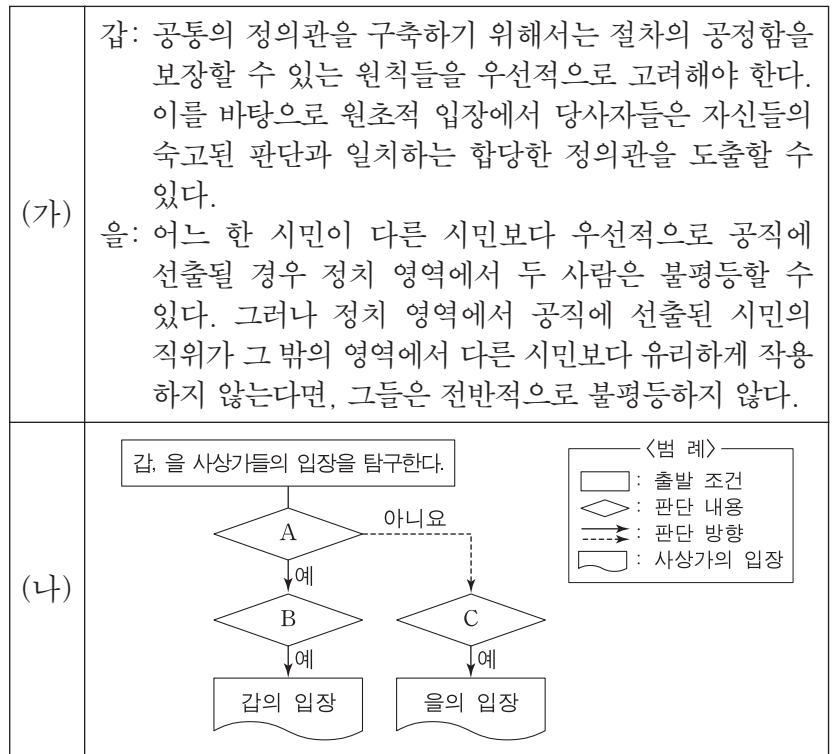
갑: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도덕적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여성에게서 잘 발휘되는 배려의 도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을: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로서 우리들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의 관행에 내재되어 있는 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 < 보 기 > —

ㄱ. 갑은 정의 중심의 윤리가 유일한 도덕규범은 아니라고 본다.
 ㄴ. 을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ㄷ. 갑은 을과 달리 여성만이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도덕적인 상황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 재화의 차등 분배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② B: 모든 사람의 이익 증진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인가?
 ③ B: 효용의 극대화가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정의관 결정의 원칙인가?
 ④ C: 사회의 한 영역의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지배해도 되는가?
 ⑤ C: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 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는가?

20.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몸을 혹사하면 기(氣)가 흐트러지고, 기가 고갈되면 목숨이 다한다. 그러므로 선인(仙人)은 약물과 수련법으로 생명을 기르고 정신을 단련하여, 몸에 병이 생기지 않고 근심거리가 침범치 못하게 한다. 신선(神仙)의 도는 지극히 높고 오묘하지만, 진실로 그 도리를 알면 불로장생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을 거슬러 세속의 생활 습관을 고수하면서, 그 미묘한 이치를 짧은 안목으로 단정하니 안타깝다.

— < 보 기 > —

ㄱ. 육체와 관계없이 정신을 독립적으로 수양해야 한다.
 ㄴ. 양생(養生)을 위해 정신 수련과 의약 연구가 필요하다.
 ㄷ. 몸 안의 기를 단련하면 건강과 수명 연장을 도모할 수 있다.
 ㄹ. 도에 이르려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